

경북여성정책제언을 위한 기초 조사 - 가족생활·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A Pilot study of Kyongbuk Womens' Policy Development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 전공
교수 김정옥

Dept. of Human Life Environment, Catholic University of Deagu
Professor : Kim, Jung O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tent the investigation of the Kyongbuk Women's policy the area of family life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imary barriers of getting a job for married women was child rearing and the diffency of working information. On the family life, communication patterns were contributed to the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parent, and spouse' relationship. And also, school violence was founded the hot problem.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hild rearing support system, and affirmative action in womens' employment enviroment, Family Life Educator and Family Counselor

- ◆ key word: 가족생활(family life), 여성의 경제활동(womens' economic activity),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가족생활교육사(family life educator),
가족상담사(family counselor)

I. 서론

해방이후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치관과 행태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그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고 하나 아직도 여성은 소수집단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관련 부서인 1946년의 후생부 부녀국설치령에서 이미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중요 의제로 밝히고 있었음에도 여성문제가 정부의 중점 정책의제로 채택되기까지에는 수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직후 여성관련 정책은 전쟁미망인, 윤락여성 등 소위 요보호여성 차원에서 다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일련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1983년 한국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심의회가 발족되기까지 20여년, 그 이후 1995년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가 채택되고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되기까지 10여년이 걸려 이제 겨우 여성정책이 정부의 중요정책과제가 된 것이다. 즉 사회환경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강조되면서 여성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부녀국 설치에 따른 1949년 부녀계 설치, 1969년 부녀아동과로의 승격, 1988년 가정복지국으로 승격 등 담당 부서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부분적으로는 정책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전까지는 거의 각 시도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였으나, 민선단체장의 취임과 함께 실시된 본격적인 지방자치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의식과 태도 등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여성정책추진의 계기가 되었다(김복규, 1998).

지방화(localization)란 각 지방이 중앙 중심의 질서에서 탈퇴하여 지방의 정치, 경제적 자립, 자율적인 사회조직의 확립, 지방문화의 창조를 통하여 지방의 자기 전개적 회복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사회학회편, 1994). 즉 지방사회의 시민들이 생활세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적인 주체를 형성

하고 자율적인 참여의 공간과 상호연대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생활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으로써 생활세계를 개선, 변혁하고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생활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를 개선 변혁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문제를 파악해야지만이 그 지역주민에 적절한 생활정치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정책이 부녀복지에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전체여성의 복지증진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책대상 또한 요보호여성에서 전체여성으로 변화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와 함께 생활문제로서의 가족생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경상북도 지역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 2) 지역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실태에 기초한 다양한 여성정책 요구도를 파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개발을 지원하며,
- 3) 다른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정책의 개념

정책은 그 체제의 기능에 따라 추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및 구성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Lowi, 1970) 정책이 작용하는 분야에 따라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등으로 구분하며 이를 세분하여 교육정책, 노동정책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책을 구분하는 또 다른 범주의 하나는 노인정책, 아동정책, 빈민정책, 장애자 정책 등과 같이 정책을 적용하는 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여성정책의 경우 대체로 대상에 따른 범주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일 이 범주에만 의존한다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여성정책이 아닌 것이 없게 될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한없이 넓어지는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단순히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이거나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의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감내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국가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불평등한 상황하에서 여성들이 감수하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짐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계획(권영자, 1995)이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적 상태는 명백히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적 문화적 무관심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극적인 정부노력으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국가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평등을 저해하는 사회제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개선하려는 행동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국가적인 차원에서 경북지역여성들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가족생활, 경제활동)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여성정책의 목표

특정 사회에서의 양성의 상태가 어떤 특정 성이나 특정 집단에게 비교우위로 집 중되거나 편향되어 양성간의 차별이 심화된다면 양성간에는 위화감이 조성되어 서로 반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이 저해될 것이다. 따라서 양성 세력의 사회적 평준화를 피하여 국민 모두가 균등한 삶의 향수를 배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견지에서 성별차별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때 국가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국민 모두에 대한 균등한 배려라면 여성정책의 기본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양성이 자기 역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김미경, 2000).

따라서 여성정책에서 남녀차별을 야기하는 모든 요소의 제거가 1차적 목표인 셈이다. 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남녀차별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인은 남녀관계를 종속의 관계로 보는 것과 여성의 역할을 가정내의 역할로 한정하는 시각에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가능성의 존재와는 실존론적 인간존재의 문제를 거역하는데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의 기본목표와 기본전략은 <그림 1>과 같다(여성특별위원회, 1998).

이를 토대로 여성정책의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정책의 기본목표는 남녀평등의 구현을 통한 여성의 인간화 내지 건강한 가정구현 및 인류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의 구현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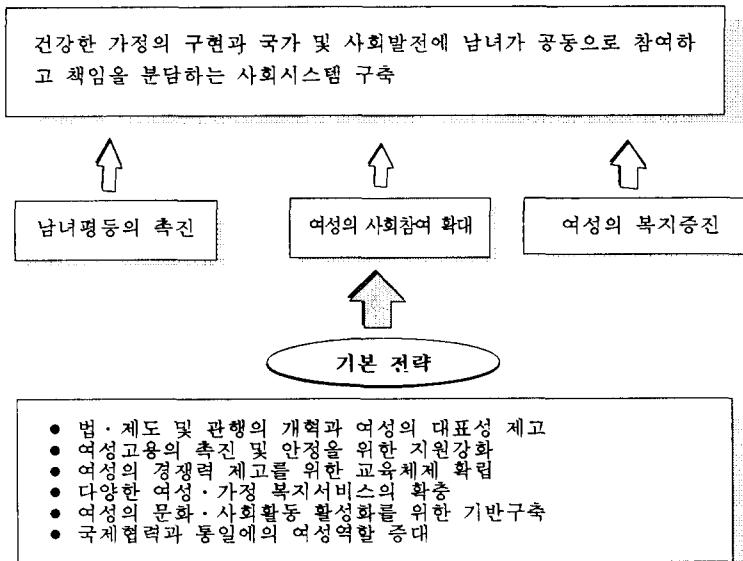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전략 중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하여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북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다. 우선 조사가구를 선정하여 그 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한 가구에 만 20세 이상 여성 2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2명까지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세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이 빠른 여성 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목 표



〈그림 1〉 여성정책의 목표 (여성특별위원회, 1998)

경상북도 전체에서 36개 지역(1,540가구)이 선정되었는데, 지역별로는 동부 17개 지역, 읍면부 19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된 지역의 가구명부작성을 위해 11명의 조사원을 선정하여 조사구로 추출된 36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지역 예비탐사의 성격을 띤 사전방문을 통해, 그 지역의 가구명부작성, 조사지역으로서의 적합성 검토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동, 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가구명부는 현지조사 전 통반(리)장을 면담하여 동, 면사무소에 서류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전 출입가구를 조사하여 보완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22 일간 총 55명의 조사원(11명의 조사지도원과 44명의 조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경상북도는 지역이 방대한 관계로 조사구간의 이동 거리가 상당히 멀어 조사의 편의를 위해 크게 3개 권역별 대구외곽권(포항권, 경북북부권)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의 문항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활동상태와 특성, 가족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혼인상태, 연령, 교육정도, 가족형태, 그리고 가족소득을 조사하였다.

2) 가족생활

가족생활내용의 척도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와 부부관계문제로 한정하였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과 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분하여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초등학교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방과후 자녀를 돌볼 사람, 사교육비 부담, 출지문제, 학교내 폭력에 관한 4개 문항, 중등학교 자

녀를 둔 가족에게는 학교성적, 자녀와의 대화, 가출, 교우관계, 폭력문제를 포함한 5개문항의 질문이 부여되었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각 cronbach $\alpha = .87$, $\alpha = .91$ 이다.

부부관계문제에 관한 척도는 남편의 의사소통방식, 남편의 경제능력, 부도덕성, 성생활, 음주문제를 포함한 5개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족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다.

3)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의 내용으로는 취업여성인 경우 여성취업자의 취업유형, 비취업 여성인 경우는 비취업 사유, 취업장애요인과 취업자원,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1) 표본수와 완료율

총 조사대상 가구 1,540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536가구이었다(조사완료율 99.7%). 이 가운데 조사대상인 만 20세 이상 여성은 1,573명으로 기혼여성이 1,478명, 미혼여성은 95명이었다. 당초 한 가구당 예상조사대상자는 약 1.16명으로 총 조사대상은 1,800여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본조사에서 가구명부작성을 위해 조사한 가구당 평균 여성가구원수는 1.11명으로 조사대상여성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 더구나 미혼여성의 경우는 학생신분이거나 읍면부지역의 경우 장기출타로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면접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조사완료된 여성은 한 가구당 1.02명이었으며, 미혼여성의 비율이 예상보다 적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된 가구 1,536가구 중 1가구에 2명 이상 조사대상자가 있는 37 가구를 포함하여 총 1,573부의 조사표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조사표는 전산처리에 들어가기에 전에 편집작업과 사전부호화작업을 거쳤다. 편집작업을 통해 조사표 항목간의 일관성 검토와 누락된 부분을 정리를 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항목분류작업을 하였으며, 사전부호화 작업에서는 단순부호화가 어렵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업, 산업, 경제활동상태, 가족형태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부호화를 하여 자료 입력을 하였다. 또한 편집, 부호화, 자료입력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수정작업을 거쳤으며 수정된 최종자료는 spss pc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백분율과 평균, 집단별 차이검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이다. 조사가 완료된 여성 1,573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여성이 95명으로 전체의 6.0%, 기혼여성이 9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30대가 29.7%, 40~50대가 41.3%, 60대 이상 노년층여성이 29.1%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에서는 20~30대가 48.7%, 40~50대가 38.9%로 나타난 반면, 읍면부에서는 40~50대가 41.3%, 60대 이상이 42.8%의 연령분포를 보여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뚜렷히 보여 준다. 교육정도를 보면 초졸 이하가 53.6%로 가장 많고 고졸 23.1%, 중졸 14.2%, 대재 이상 9.1% 순이다. 교육정

〈표 1〉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비교

(단위: 명(%))

혼인상태	전 체	동 부	읍 면 부
미 혼	95(6.0)	76(10.8)	19(2.2)
기 혼	1478(94.0)	630(89.2)	848(97.8)
유배우	1188(75.5)	541(76.6)	647(74.6)
이혼/별거	23(1.5)	16(2.3)	7(0.8)
사 별	267(17.0)	73(10.3)	194(22.4)
계	1573(100.0)	706(100.0)	867(100.0)

〈표 3〉 지역별 세대별 기구분포

(단위: 가구(%))

	전 체	동 부	읍 면 부
1 세대 가구	313(20.4)	64(9.4)	249(29.2)
2 세대 가구	862(56.1)	505(73.8)	357(41.9)
3 세대 가구	205(13.3)	77(11.3)	128(15.0)
단독가구	147(9.6)	35(5.1)	112(13.2)
기타	9(0.6)	3(0.4)	6(0.7)
계	1536(100.0)	684(100.0)	852(100.0)

주: 기타사항에는 배우자 없이 친족끼리 사는 가구, 비혈연가구끼리 사는 가구가 포함됨

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부지역 여성은 고졸이 41.9%로 가장 많은 반면 읍면부 여성은 대다수인 78.1%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도 동부(16.2%)가 읍면부(3.3%)보다 5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연령 및 교육정도 분포

(단위: 명(%))

	전 체	동 부	읍 면 부
연령별	1573(100.0)	706(100.0)	867(100.0)
20~29세	163(10.4)	130(18.4)	33(3.8)
30~39세	303(19.3)	214(30.3)	89(10.3)
40~49세	332(21.1)	188(26.6)	144(16.6)
50~59세	317(20.2)	87(12.3)	230(26.5)
60~69세	325(20.7)	65(9.2)	260(30.0)
70대이상	133(8.4)	22(3.2)	111(12.8)
교육정도별	1557(100.0)	705(100.0)	852(100.0)
초졸이하	834(53.6)	169(24.0)	665(78.1)
중 졸	221(14.2)	126(17.9)	95(11.2)
고 졸	360(23.1)	296(41.9)	64(7.5)
대재이상	142(9.1)	114(16.2)	28(3.3)

다음으로 세대별 구성분포를 보면 2세대 가구의 비율(56.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세대가구(20.4%), 3세대 이상가구(13.3%)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에서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73.8%에 달하며, 1세대 가구의 비율이 9.4%에 불과한 반면, 읍면부에서는 동부보다 1세대가구의 비율(29.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독가구의 비

율도 동부에 비해 2.6배나 많은 13.2%의 비율을 보이는데, 특히 이를 읍면부 단독가구 거주자의 평균연령이 67세로 나타나 농촌지역 노인단독가구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가족형태를 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부부가족, 직계가족 그리고 기타가족형태중 단독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동부는 핵가족의 비율(70.7%)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핵가족이 37%로 높긴 하나 자녀가 없는 부부가족의 비율이 29.5%로 동부의 9.2%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읍면부의 연령구성이 고연령층이 많음을 볼 때, 이러한 비율을 차지하는 가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이기보다는 자녀를 출가시킨 고연령층의 부부일 확률이 높다. 한편 직계가족은 읍면부에서 비율이 높으며 단독가구비율 역시 읍면부가 높다.

2. 가족생활

이 항목의 분석대상은 실제 결혼생활을 통해 자녀·남편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배우 및 유자녀 여성인 기혼여성(N=1476)으로 한정하였다.

1)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의 학령기를 중심으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과

〈표 4〉 지역별 가족형태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

	전 체		동 부		읍 면 부	
	부부 가족	316	20.2	65	9.2	251
핵 가족	799	52.6	484	70.7	315	37.0
부부+18세미만 자녀	(324)	(20.7)	(252)	(36.8)	(72)	(8.5)
기타 핵 가족	(475)	(31.9)	(232)	(33.9)	(243)	(28.5)
직 계 가족	145	9.5	58	8.5	87	10.2
학 대 가족	120	7.8	39	5.7	81	9.5
기 타	156	9.9	38	5.6	118	13.8
계	1536	100.0	684	100.0	852	100.0

주: 기타사항에는 가구원이 1명인 가구, 배우자 없이 친족끼리, 비혈연가구끼리 거주하는 가구형태가 포함됨

〈표 5〉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 분	내 용	전 체	지 역		t
			동 부	읍 면 부	
초등 자녀	방과후 자녀 돌볼사람이 없다	3.60(1.39)	3.59(1.36)	3.63(1.47)	-.218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2.62(1.27)	2.50(1.18)	2.91(1.42)	-2.356*
	촌지문제로 걱정이 많다	3.56(1.37)	3.41(1.33)	3.92(1.39)	-2.754**
	학교내 폭력이 걱정된다	2.81(1.37)	2.79(1.29)	2.87(1.55)	-.430
중등 자녀	아이 성적이 나빠 걱정이다	3.17(1.20)	3.18(1.22)	3.16(1.19)	.166
	아이와 대화가 잘 안된다	3.67(1.18)	3.56(1.18)	3.80(1.16)	-1.899
	아이 가출로 걱정이 많다	4.61(0.80)	4.60(0.73)	4.63(0.88)	-.209
	나쁜 친구와 어울려 다녀 걱정된다	4.14(1.23)	4.09(1.29)	4.20(1.16)	-.859
	폭력문제로 걱정이 많다	3.47(1.48)	3.49(1.47)	3.44(1.49)	.325

*p< .05 **p< .01

중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분하여 관심사를 살펴보았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중에서 먼저 초등학생이 있는 여성의 경우는 사교육비 부담(2.62)과 학교내 폭력(2.81)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의 여성은 읍면부 여성에 비해 세부문항 모두에서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 전반적으로 읍면부 여성에 비해 초등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동부: 2.50, 읍면부: 2.91)와 촌지문제(동부: 3.41, 읍면부: 3.92)는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 여성들이 읍면부 여성보다 당면문제로 인식

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자녀의 성적문제(3.17)가 비교적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다음은 학교폭력(3.47)문제로 나타났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인격형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만들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는 집단이다.(홍재선, 1996) 즉 교육을 말할 때는 학교라는 시설을 떠나서 생각 할 수 없을 만큼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청소년들은 부모나 학교 교

사로부터 학업에 열중할 것만을 강조받고 있어 성취지향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학업성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자녀의 실제 성적과의 차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이동원, 1994). 그 단적인 증거로서 1960년대의 청소년 비행의 46%는 결손가족이 원인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는 대학입시로부터 받고 있는 중압감과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용교, 1994). 부모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반면 자녀들은 민주적이고 애정어린 관계를 원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소년이 있는 가족은 불안하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성적에 대한 중압감이 부모 자녀관계의 대화 단절을 초래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점차로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도 된다.(Hirschi, 1969)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학교 폭력의 실상으로는,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려오던 중3학생이 담임 교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폭력학생의 이름을 밝혔다는 이유로 해당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사건(중앙일보 97.12.5), 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반 친구 장모군에게 “지각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다가 얼굴과 배등을 구타당한 사건(중앙일보, 97.7.8)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사회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공포에 떨면서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생활이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끊거나 극도의 불안감, 정신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학교폭력은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흥폭화, 연소화, 집단화되어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며, 뚜렷한 동기나 양심의 가책 없이 폭력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폭력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 급우들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이 표면화 되면서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김준호, 1997) 한편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지가 높고 커뮤니케이션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성원 각자의 역할수행이 잘 될 수록 학교 폭력이 감소한다(정선경 1998)는 보고를 고려할 때 가족의 정서적 지지와 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이 폭력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청소년 폭력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청소년의 생활지도, 문제해결을 위한 예방적, 치료적 측면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2) 부부관계

부부관계문제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여러 가지의 부부관계문제 중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한 불만(3.61) 정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남편의 과도한 음주(3.78)에 대한 불만정도가 높았다.

세부항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제적 능력, 남편의 외도, 성생활에 대한 불만정도는 동부 여성의 읍면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부관계는 어떠한 대인관계보다도 친밀한 관계이어야 한다고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의사소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김진희외 1998) 부부의 의사소통이란 서로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노출시켜 생각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으로,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과 목표를 알게 되며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다.(유두희, 1993) 현대 산업사회 가족제도에서는 부부가 애정을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하여 부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민주적 가정관리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쌍방적인 상호관계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겠다(김진희외, 1998).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

〈표 6〉 부부관계문제에 대한 지역별 차이

(단위: 평균)

내 용	전 체			t
		동 부	읍 면 부	
의사소통문제	3.61(1.19)	3.66(1.16)	3.56(1.22)	1.361
경제적 문제	3.81(1.10)	3.73(1.10)	3.87(1.10)	-2.153**
외 도 문 제	4.71(0.63)	4.64(0.71)	4.77(0.56)	-3.568***
성생활 문제	4.42(0.84)	4.34(0.85)	4.50(0.82)	-3.337***
음 주 문 제	3.78(1.31)	3.85(1.25)	3.72(1.36)	1.737

p < .05, ** p < .01, *** p < .001

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눔으로써 부부는 더욱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오늘날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살아갈 작은 세계를 구성해야하는 어려운 과업에 돌입하였다. 다시 말해 실재를 규정하고 실재를 지탱하는 과정은 원초적으로 가족내에서 일어나며, 그 과정의 중심축은 부모-자녀간이나 형제자매간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부부 의사소통이다 (Berger and Kellner, 1964).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방식에 불만이 높다는 지적은 생각을 서로 주고 받으며 부부관계에서 의미를 창출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수립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부갈등을 발생시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이 개발되고 응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알콜문제가 있는 가족들은 종종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 부적절한 유형을 사용해 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부부간의 성적, 재정적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켜왔으며(김효남 외, 1996), 이는 남편의 음주와 부부갈등은 상호순환적인 관계에 있음을 입증해 준다.

알콜중독자 부인들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부부갈등 및 가족문

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편의 음주동기에는 가족관계의 불화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미혜 외 1995) 남편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부부관계의 개선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여성의 경제활동

1) 여성취업자의 주요취업유형

여성취업자의 분포를 유형별로 살펴보기 위해 혼인상태와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7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다. 아래의 7개 집단은 전체 취업여성(N=882)의 86.1%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4개집단(A,B,C,D)은 전체 기혼 취업여성(N=824)의 86.2%를, 미혼여성 3개집단(E,F,G)은 전체 미혼여성 (N=58)의 84.5%를 포함하고 있다.

각 집단별 특성을 보면, 먼저 A유형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취업여성 대부분(98.1%)이 이에 속하며, 농림어업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이에 속하며, 형태를 띤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40대 이상(91.3%)으로 초졸 이하(84.3%)의 학력을 지녔다.

A유형이 주로 읍면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형태라면, 동부에 거주하는 기혼 취업여성(77.0%)의 대부분은 B, C, D 유형의 취업형태를 보였다. B, C, D집단에 속하는 여성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B, C, D집단에 속하는 기혼여성 모두 40대 연령층의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다(각각 34.2%, 50.0%, 25.0%). 학력별로는 C집단에서 고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B, D집단 순이었다. 각 집단의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C집단이 60.0%, B집단이 50.5%, D집단은 27.5%였다. 따라서 B와 C 같은 취업형태를 가지는 기혼여성은 D의 취업형태를 가진 취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연령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조사의 전체 취업여성(N=882) 가운데 미혼여성(N=58)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미혼여성들의 취업형태 및 경향을 보기 위해 취업유형을 다음 세 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미혼취업여성중 E, F, G 집단에 속하는 미혼여성(N=49)의 대부분은 동부(83.7%)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각 취업형태에 속하는 미혼여성의 인적특성을 보면, E집단에 속하는 여성취업자의 평균연령(23.83세)이 가장 낮았고, G(25.55세) F(26.13세)의 순이었다. E, F, G 세집단의 학력수준은 기혼여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아 고졸 이상의 학력(91.8%)을 지닌 여성 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 비취업 여성

전체 응답자의 43.4%가 비취업여성(N=682)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여성이 61.0%, 읍면부 여성이 29.5%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읍면부 여성의 비취업 비율이 동부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

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53.5%) 40~50대(32.9%)에 비해 비취업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도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57.4%)가 중졸 이하 여성(37.0%)보다 취업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비취업여성 중 구직 노력 중인 실업여성은 118명(17.3%),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여성이 216명(31.7%),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여성이 348명(51.0%)으로 나타났다.

(1) 비취업 사유 및 만족도

비취업여성이 취업하지 않은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34.0%)가 가장 많았으나, 65세이상 노인여성은 제외한 경우(N=531)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33.5%)’와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31.3%)’가 가장 중요한 사유였다. 연령계층별로 볼 때 20, 30대 여성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20대 51.6%, 30대 52.6%)’를, 40, 50대 여성은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40대 43.7%, 50대 33.0%)’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30대는 자녀문제로, 가사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40~50대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수준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이 허락치 않아서(55.2%)’,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43.7%)’가 가장 큰 비취업사유로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의 구직노력별 비취업사유를 살펴보면

〈표 7〉 여성취업자의 주요 취업유형

(단위: %)

구 분	유 형	종 사 직 종	종 사 상 의 지 위	전체 취업여성 대비
기 혼 취업 여 성	A	농림어업직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8.8%(73.1%)
	B	서비스판매직	고용.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2.6%(15.6%)
	C	서비스판매직	임 금 근 로 자	4.5%(5.6%)
	D	단순노무직	임 금 근 로 자	4.5%(5.6%)
미 혼 취업 여 성	E	서비스판매직	임 금 근 로 자	2.6%(39.6%)
	F	사 무 직	임 금 근 로 자	1.7%(25.9%)
	G	전문, 준전문직	임 금 근 로 자	1.2%(19.0%)

주: ()의 내용은 기혼여성의 경우는 전체 기혼여성에 대한 각 집단의 비율, 미혼 여성은 전체 미혼여성에 대한 각 집단의 비율임

일자리를 구하는 중인 실업여성은 '적합한 일 또는 직장이 없어서(67.8%)'를,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여성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35.6%)'를,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여성은 '건강상 이유(50.4%)'를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취업을 희망하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구직률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여성의 경우는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이 취업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3) 취업장애요인과 취업지원 서비스

먼저 여성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여성자신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가사 및 육아 부담(40.2%)'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자신의 능력(22.3%)', '사회적 편견(19.1%)', '직업의식 및 책임감부족(6.6%)', '승진 등 근로여건(2.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편견'과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에 대한 응답빈도는 20대 연령층에

〈표 8〉 비취업여성의 인적특성별 비취업사유

(단위: 명(%))

	적합한일· 직장이 없어서	일할 필요를 못 느껴서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일로 인한 스트레스 시간압박	전 체
전 체	183(26.8)	44(6.4)	34(5.0)	232(34.0)	180(26.4)	10(1.4)	683(100.0)
지역별							
동 부	139(32.3)	29(6.7)	24(5.6)	84(19.5)	147(34.3)	7(1.6)	430(100.0)
음면부	44(17.4)	15(5.9)	10(4.0)	148(58.5)	33(13.0)	3(1.2)	253(100.0)
연령별							
20~29세	23(24.7)	12(12.9)	2(2.2)	3(3.2)	48(51.6)	5(5.4)	93(100.0)
30~39세	37(23.7)	7(4.5)	16(10.2)	14(9.0)	82(52.6)	0(0.0)	156(100.0)
40~49세	52(43.7)	5(4.2)	8(6.7)	13(10.9)	37(31.1)	4(3.4)	119(100.0)
50~59세	31(33.0)	13(13.8)	4(4.3)	36(38.3)	9(9.6)	1(1.0)	94(100.0)
60세이상	40(18.1)	7(3.2)	4(1.8)	166(75.1)	4(1.8)	0(0.0)	221(100.0)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68(22.3)	11(3.6)	7(2.3)	199(65.2)	18(5.9)	2(0.2)	305(100.0)
중 졸	31(35.6)	8(9.2)	5(5.7)	13(14.9)	28(32.3)	2(2.3)	87(100.0)
고 졸	70(32.4)	11(5.1)	17(7.9)	14(6.5)	102(47.2)	2(0.9)	216(100.0)
대재이상	13(18.6)	14(20.0)	4(5.7)	3(4.3)	32(45.7)	4(5.7)	70(100.0)
소득수준별							
100만원~	93(27.0)	15(4.4)	6(1.7)	190(55.2)	36(10.5)	4(1.2)	344(100.0)
100~199	69(29.1)	17(7.2)	16(6.8)	25(10.5)	108(45.6)	2(0.8)	237(100.0)
200만원+	18(20.5)	12(13.6)	12(13.6)	8(9.2)	34(38.6)	4(4.5)	88(100.0)
구직여부별							
실업자	80(67.8)	1(0.8)	5(4.2)	11(9.3)	21(17.8)	-	118(100.0)
취업희망자 비경제활자	71(32.9)	9(4.2)	11(5.1)	45(20.8)	77(35.6)	3(1.4)	216(100.0)
취업비희망 비경제활자	32(9.3)	33(9.6)	17(4.9)	174(50.4)	82(23.8)	7(2.0)	345(100.0)

주: 각 항목의 합이 맞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서, '여성자신의 능력'때문이라는 응답빈도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혼인상태별로 볼 때 기혼여성이 '가사 및 육아부담(42.9%)'을 가장 큰 취업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미혼여성은 '사회적 편견(35.9%)'을 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정도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가사 및 육아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자신의 능력'을 취업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대학재학 이상의 여성들은 취업이 어려운 이유가 '여성자신의 능력'보다는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승진 등 근로요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학력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편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38.7%로 가장 많았고, '자녀보육시설이나 방과후 시설'이 30.8%,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은 15.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의 '자녀보육시설 및 방과후시설'에 대한 요구도(44.2%)가 높은 반면, 40~50대 여성은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도(44.3%)가 높았고, '노인 등 가족원 보호수발 서비스'는 60대 이상(22.1%)에서 타연령층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대상의 경우 연령계층별로 자신의 생애주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의 요구도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도 이러한 연령계층별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고연령층이 많은 저학력 집단에서는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과 '노인 보호 수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젊은 연령층이 많은 고학력 집단에서는 '자녀보육시설 및 방과후 시설'에 대

〈표 9〉 인적특성별 취업장애요인 인지

(단위: %)

	여성자신의 능력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부족	승진 등 근로요건	가사 및 육아부담	기타	전체
전체	342(22.3)	293(19.1)	102(6.6)	42(2.7)	618(40.2)	140(9.1)	1537(100.0)
지역별							
동부	119(17.2)	142(20.4)	64(9.2)	23(3.3)	294(42.3)	53(7.6)	695(100.0)
읍면부	223(26.5)	151(17.9)	38(4.5)	19(2.3)	324(38.5)	87(10.3)	842(100.0)
혼인상태별							
기혼	328(22.7)	260(18.0)	84(5.8)	33(2.3)	606(41.9)	134(9.3)	1445(100.0)
미혼	14(15.2)	33(35.9)	18(19.6)	9(9.8)	12(13.0)	6(6.5)	92(100.0)
연령별							
20~29세	21(13.0)	49(30.4)	19(11.8)	10(6.3)	55(34.2)	7(4.3)	161(100.0)
30~39세	54(18.0)	54(18.0)	23(7.7)	3(1.0)	151(50.3)	15(5.0)	300(100.0)
40~49세	58(17.8)	73(22.4)	19(5.8)	8(2.4)	142(43.6)	26(8.0)	326(100.0)
50~59세	83(27.2)	51(16.7)	17(5.6)	9(3.0)	108(35.4)	37(12.1)	305(100.0)
60세이상	126(28.3)	66(14.8)	24(5.4)	12(2.7)	162(36.4)	55(12.4)	445(100.0)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212(26.3)	130(16.1)	43(5.3)	24(3.0)	301(37.3)	97(12.0)	807(100.0)
중졸	46(20.9)	54(24.5)	14(6.4)	1(0.5)	87(39.5)	18(8.2)	220(100.0)
고졸	69(19.4)	65(18.3)	27(7.5)	7(2.0)	170(47.8)	18(5.0)	356(100.0)
대학이상	13(9.4)	44(31.7)	18(12.8)	10(7.2)	49(35.3)	5(3.6)	139(100.0)

주: 1. 각 항목의 합이 맞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기혼여성에서는 이혼, 사별, 별거 중인 여성이 모두 포함됨.

〈표 10〉 인적특성별 취업지원서비스욕구

(단위: 명 %)

	직업훈련 기술교육	일자리알선 사업정보제공	사업자금 저리용자	자녀보육시설 방과후 시설	노인 등 보호 수발서비스	전 체
전 체	235(15.9)	575(38.7)	72(4.9)	456(30.8)	144(9.7)	1482(100.0)
지역별						
동 부	106(15.7)	286(42.3)	23(3.4)	222(32.8)	39(5.8)	676(100.0)
읍면부	129(16.0)	289(35.9)	49(6.1)	234(29.0)	105(13.0)	806(100.0)
혼인상태별						
기 혼	208(15.0)	538(38.7)	71(5.1)	431(31.0)	143(10.2)	1391(100.0)
미 혼	27(29.7)	37(40.6)	1(1.1)	25(27.5)	1(1.1)	91(100.0)
연령별						
20~29세	29(18.2)	59(37.1)	2(1.3)	68(42.8)	1(0.6)	159(100.0)
30~39세	48(16.2)	96(32.4)	11(3.7)	135(45.6)	6(2.1)	296(100.0)
40~49세	59(18.6)	131(41.2)	17(5.3)	90(28.3)	21(6.6)	318(100.0)
50~59세	37(12.4)	141(47.3)	22(7.4)	73(24.5)	25(8.4)	298(100.0)
60세이상	62(15.1)	148(36.0)	20(4.9)	90(21.9)	91(22.1)	411(100.0)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118(15.4)	291(38.1)	44(5.8)	201(26.3)	110(14.4)	764(100.0)
중 졸	35(16.1)	93(42.9)	14(6.5)	59(27.2)	16(47.3)	217(100.0)
고 졸	52(14.9)	137(39.3)	10(2.8)	135(38.7)	15(4.3)	349(100.0)
대재이상	30(22.1)	40(29.4)	4(2.9)	59(43.4)	3(2.2)	136(100.0)
취업여부별						
취 업	146(17.6)	314(37.9)	55(6.6)	243(29.3)	70(8.6)	828(100.0)
비취업	89(13.6)	261(39.9)	17(2.6)	213(32.6)	74(11.3)	654(100.0)

주: 1. 각 항목의 합이 맞지 않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무응답이 있기 때문임.

2. 기혼여성에서는 이혼, 사별, 별거 중인 여성이 모두 포함됨.

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기대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 제공(51.7%)’이 가장 많았고, ‘보육시설 및 방과후 시설(32.8%)’에 대한 요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리고 구직여부에 관계없이 살펴 보았을 때도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 제공’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구직 취업희망 여성의 경우에는 ‘보육시설·방과후시설’에 대한 요구(35.4%)가 실업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가 구직 및 취업을 막설이게 하는 또 하나의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부 노동력의 최대의 문제점인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 등이 국가적 차원

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이들의 고용은 남성 노동력과 동등한 정규고용의 형태로 자리잡기 어렵고 기업들로부터 여전히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의 노동시장은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확대,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 고유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섬세함 등이 중요시 되므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성차별과 균로조건 및 지위의 개선, 균로형태의 정규화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여성은 가족기업내에 머물거나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더욱 특화될 것이다. 특히, 지방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가부장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여

〈표 11〉 취업희망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욕구

(단위: 명 %)

	직업훈련 기술교육	일자리알선 사업정보제공	사업자금 저리용자	보육시설 방과후시설	노인 등 보호 수발서비스	전 체
전 체	48(14.7)	144(44.2)	6(1.8)	107(32.8)	21(6.5)	326(100.0)
실업여성	16(14.0)	59(51.7)	1(0.9)	32(28.1)	6(5.3)	114(100.0)
취업희망 비경제활동여성	32(15.1)	85(40.1)	5(2.3)	75(35.4)	15(7.1)	212(100.0)

성고용을 증가시키고 여성노동 환경을 개선시키는 지역경제 개발계획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법과 제도상의 개선과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구의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부족해진 산업인력, 그리고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가사노동의 자동화로 증대된 여성들의 욕구는 여성인력의 적절한 활용 없이는 다가오는 21C 지방화시대를 해쳐나갈 수 없게 만든다.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은 그 나라의 인적 자본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다(차은영, 1997).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여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경북여성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가족생활 및 여성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36개 지역(1540가구)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방과후 자녀돌봄 사람이 없는 것과 사교육비 부담, 학교내 폭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중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의 성적, 폭력문제, 자녀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 과음, 생활비 부족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경제활동상태중 경북여성의 취업형태는 기혼여성인 경우 농림, 어업직의 자영업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이들 여성의 73.1%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판매직의 비임금 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기혼여성이 상당히 적은 가운데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 근로자가 비교적 많았다. 미혼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가 다수를 이루며,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의 임금근로자가 3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 임금근로자, 전문 및 전문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취업여성의 비취업사유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적합한 일이나, 직장이 없어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장애요인으로서는 가사 및 육아부담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자신의 능력의 순이었다.

취업희망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요구로는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 보육시설, 방과후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체 응답자의 13.8%, 도시지역 여성의 22.5%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집단(비구직 취업희망여성)으로 나타났다. 실업여성에 비해 20~30대 젊은 연령층(53.2%)이 많고 학력도 고졸 이상(43.7%)이 많았다. 가사 및 육아부담이 높은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70.8%가 시간제를 선호하였다.

(3) 여성들이 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는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30.8%나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지원정책의 강화이다.

출산과 육아는 국가경쟁력의 근본인 인적자원의 생산이며 국가의 미래를짊어질 차세대 국민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정부차원의 관리와 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탁아문제이다. 핵가족시대의 탁아문제는 전문적인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여성의 평생고용을 유도하고 여성의 잠재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을 줄이는 것이다. 국가의 인적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양질의 지역탁아, 직장탁아, 가정탁아시설에 관한 관리와 지원이 있어야 하고 탁아비용, 대체 가사노동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등의 정책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가족생활교육사 및 가족상담사의 전문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학교폭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부부관계 역시 남편의 일방적인 대화방식, 남편의 음주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족자체는 가족생활주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이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에 또는 문제에 직면 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분야가 필요하다. 즉 능력과 자대처전략이 부족한 경우나 그러한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전에 준비교육과 훈련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접근 가능한 영역이 가족상담분야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교육사 및 가족상담사를 국가의 공인된자격증 제도로 활성화시킴으로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되는 바이다.

셋째,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실업율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이에 따라 여성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채용 목표제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며, 지방 공기업에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문호개방을 권유한다. 한편 민간기업의 대여성 문호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채용인원 중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이나 지자체와의 계약체결 및 보조금의 지급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도록 제안한다.

넷째, 여성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

경북여성의 비농업부문 취업기회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가 큰 편이다. 여성에게 적합한 사업의 창업, 예컨대 지역 고유의 자연 및 문화자원 연계형 업종 등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이들에 대한 재정, 훈련, 상담, 기술적 보조서비스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을 비롯한 민간 부문이 여성들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 도시여성의 42.3%가 가장 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로 '일자리 알선 및 사업정보제공'을 요구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취업알선기능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만 해도 시군단위 여성취업정보센타와 도내 9개 여성회관에서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포항, 구미),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집(구미, 포항, 칠곡)에서 현재 여성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대상의 취업알선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여성에게 단순한 정보제공 이상의 상담업무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여성의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도록 독려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

성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취업현장에 대한 현실감각과 철저한 직업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구직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취업준비교육을 연계해서 취업알선업무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자원의 활용 및 사회참여를 통하여 여성의 인간화 및 건강한 가정구현과 인류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방화 시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생활정치의 정착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촉구한다.

21c를 특징 지우는 가장 강력한 힘인 정보화시대는 여성의 시대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경북지역의 가족생활 및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박사논문.
- 김미경(2000). 여성정책과 정부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 포럼 발표논문집.
- 김미혜 · 엄예선 · 이은주 · 윤명숙(1995) 알콜중독가족의 특성 및 부부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24.
- 김복규(1998).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개원기념 심포지움 열린 경북 미래를 여는 여성.
- 김진희 · 김경신(1998). 부부간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한가정학회 36(8).

김준호(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김효남 · 박태영(1996). 의사소통 문제를 지닌 알콜 중독자의 가족치료사례연구. 한국 가족치료학회지 4집.

이동원(1994). 대학입시와 가족. 한국사회학회.

이용교(1994). 청소년의 가족문제. 한국청소년개발원.

유두희(1993). 도시부부의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여성특별위원회(1998).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정선경(1998).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 석사논문.

중앙일보 (1997. 12. 5)

중앙일보 (1997. 7. 8)

차은영(1997). 지역경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미래인력연구센타 여성연구 학술대회.

한국사회학회편(1994).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한국청소년개발원(1992).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3월.

홍재선(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 석사논문.

Lowi, T. J(1970). Decising making us, policy making; toward an antidote for technocracy. *Public Administracion Review* 30.

Hirschi,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ger and Hansfried kellner(1964).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Aldine publishing.